

◆머느리권씨 열전 29-1

기정진(蘆沙 奇正鎭)의 어머니, 권씨 (추밀공파 요계 29세, 권덕언의 딸)



기정진 조모요 인물이 나오는 귀혈이라 한다.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 산34번지에 위치하며, 풍수적으로 '황앵탁목(黃鶯啄木)' 명당으로 유명하고 기정진의 아버지가 3년을 찾아 다니고 그는 풍수기이다.

사진 시현성

전북 순창(淳昌)의 산자락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 후기의 유학자 기정진의 탄생과 운명을 둘러싼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출생담이라기보다, 한 인물의 학문적 운명과 시대적 기운을 설명하려는 상징적 서사로 오래도록 기억해 왔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 기재우(奇在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일찍 부모를 잃고 세상의 고독 속에서 효를 다하지 못한 아픔을 품은 인물이었다. 살아 있는 동안 다하지 못한 효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그는, 결국 풍수지리에 의지해 부모의 자리를 정성껏 모시는 길을 택한다. 그렇게 선택된 곳이 전라북도 순창 북흥의 '황앵탁목혈(黃鶯啄木穴)'이라 전해진다.

그는 그곳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후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운의 자리'라고 믿었다. 조선 뒤 몇 해가 지나 그의 집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깃든다. 바로 기정진이었다.

어머니 권씨는 마흔이 넘어 어렵게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기정진은 정조 22년(1798) 6월 3일 전라북도 순창군(淳昌郡) 조동(槽洞)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금빛 얼굴을 가진 큰 사람이 남자아이를 안고 오는 꿈을 꾸 뒤 12개월 만에 그를 낳았다고 한다.

집안에는 기쁨과 긴장이 동시에 감돌았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던 아버지 기재우의 태도는 뜻밖에도 조용했다. 기쁨을 드러내기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사람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렸다고 전해진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아이의 운명을 짐작하려는 내면의 긴장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7일째 되던 날, 사건이 일어난다. 삼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던 그녀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고, 그 충격이 갓난아이의 눈에 닿게 되었다. 아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 울음을 터뜨렸고,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실제로는 천연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순간, 며칠째 문을 닫고 있던 기재우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가 크게 놀라거나 분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담담했다. 그리고 "큰 탈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며 상황을 가라앉혔다고 한다. 그의 태도에는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다.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 4장 제 몸은 알아야지

5. 생명장(生命長)

사람들은 각자의 인격과 생명의 기운에 의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생명장이란 생명의 파장(波長)의 범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영향을 받았다.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병도 고침을 받았다. 죄책감에서 풀려나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육과 영의 구우녀를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전환점을 맞았다.

생명장의 범위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이웃이라고 보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생명장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간다. 현대인들에 가장 많이 있는 노인โรค이나 우울증, 각종의 정신적 질병의 원인을 보면 90%가 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우연히 발병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신병의 치료가 어려운 것이다. 원인을 모르고 또한 원인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 성격이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아내와 자식을 구타하게 되면 아이들이 정신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엄마의 비행이나 외

이야기 속에서 더욱 기이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그 다음이다. 그가 선택한 명당 ‘황앵탁목혈(黃鶯啄木穴)’은 단순한 길지가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발복(發福)한다고 믿어지던 자리였다. 그 조건 중 하나가 ‘후손 가운데 특별한 표정을 지닌 인물이 태어난다’는 것이었고, 일부 전승에서는 그것이 한쪽 눈의 상실로 상징되었다고 한다.

전하위복 그 믿음의 결실

아이의 눈에 생긴 불상사는 오히려 가문의 운명이 제대로 열리는 징조로 받아들여졌고, 아버지는 그것을 슬픔이 아니라 하나의 징표로 해석했다고 전해진다. 비극처럼 보이는 사건이, 전통 풍수의 논리 안에서는 오히려 ‘성취의 신호’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기정진의 출생 설화는 단순한 기이담이 아니라, 조선 후기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인간의 운명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땅의 기운과 조상의 자리,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정된다고 믿었던 시대의 사유 방식이 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결국 이 설화는 한 아이의 신체적 특징을 설명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한 지역에서 위대한 학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었는지를 설명하려는 문화적 장치이다. 순창이라는 공간, 효라는 윤리, 풍수라는 믿음, 그리고 성리학자의 탄생이 한 줄의 서사로 엮이며 전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기이함을 느끼기보다, 한 시대가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 자체를 함께 떠올리게 된다.

어린시절 신통

7세 때 지었다는 ‘영마석(詠磨石)’을 보면, 이 시는 단순히 어린아이의 글이라기보다 이미 사물 속에서 이치를 꿰뚫어 보려는 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천동지정리(天動地靜理), 오반마석간(吾反磨石看)”이라는 구절에서 그는 하늘은 움직이고 땅은 고요하다는 자연의 질서를 말하면서, 그것을 멀리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땀물”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물 속에서 그 이치를 되비추어 본다. 위아래 두 돌이 맞닿려 돌아가면서 도 하나는 돌고 하나는 받쳐주는 구조, 그 안에서 움직임과 고요함이 함께 드러나는 장면을 보며 우주의 원리를 읽어낸 것이다. 어린 나이의 시선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사물을 통해 세계 전체를 이해하려는 방향이 잡혀 있다. 이어 하서 김인후의 ‘영천시’에 차운한 시에서는 표현이 한층 넓어지고 정제된다. 하늘을 “창창한 푸름”으로 보고 그것을 곧 “현묘함”으로 연결시키며, 그 높이와 넓이를 끝이 없고 경계가 없다고 노래한다. 여기까지는 자연을 바라보는 경외의 감정이 짙다.

그러나 이 시의 중심은 마지막 구절에 있다. 선과 악에 따라 그 응보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우주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를 함께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어 “지극한 이치가 밝게 이어진다”고 하여, 세상 만물이 흠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이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두 편의 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는 사물 속에서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는 직관의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원리를 도덕과 질서의 언어로 확장한 사유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의 세계 인식은 단편적인 관찰을 넘어, 사물과 이치, 그리고 도덕을 하나로 묶어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산서원 그리고 기정진 부모묘소

전라남도 장성의 고산(高山) 자락에는 한 유학자의 숨결이 아직도 조용히 머물고 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의 거목 기정진의 삶은 학문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문 공간과 가문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야기로 전해진다.

그 중심에는 고산서원이 있다. 서원 강당인 담대헌(澹對軒)은 단순한 강학 공간이 아니라, 한 인간의 효심과 그리움이 응축된 장소였다. 노년의 기정진은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마음 깊이 불효를 한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1878년, 그는 담대헌의 마루를 단순한 강의 공간이 아니라 먼 산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다리’로 삼았다.

그 마루에 올라서면 남쪽으로 무등산 자락이 보이고, 그 너머 어딘가에 그의 부모 묘소가 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 기재우(奇在祐)와 어머니 안동 권씨, 그 두 분의 자리였다. 눈으로는 서원에서 머물러 있으나, 마음으로는 늘 산 너머 부모의 묘를 향해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담대헌은 학문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효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 서원은 본래 그가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었고, 후일 1927년에 후손들에 의해 서원으로 정비되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공간은 시간이 흐르며 변했지만, 그 안에 깃든 정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 묘소는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고산리 일대, 무등산 자락을 바라보는 자리로 전해진다. 자연의 기세와 산의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잡은 묘소는 단순한 매장지 아니라, 후손의 삶과 학문을 비추는 기준점처럼 여겨졌다.

또한 그의 자신의 묘소는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황산마을 뒷산에 조성되어 있다. 그곳에는 유림들이 세운 신도비가 함께 서 있어, 한 시대를 대표한 학자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그의 가계 또한 단순한 혈통의 기록을 넘어선다. 증조 기종상, 조부 기태량, 아버지 기재우를 거쳐 그에게 이르는 흐름은 조선 후기 남도 사대부 가문의 전통을 보여준다. 그는 행주 기씨 가문에서 태어나 울산 김씨와 혼인하였고, 아들 기만연과 손자 기우만으로 이어지는 후손을 남겼다. 특히 손자 기우만은 훗날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또 다른 시대의 이름을 남기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그의 탄생과 지혜를 둘러싼 이야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1798~1879)과 서첩, 위정척사비 AI제작

있지는 않는지?

생명장을 지닌 이를 늘 사모하고 동경하여 생명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6. 사람다움

초등학교 앞 복잡한 도로를 자동차들이 아이들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고 있다. 아이들은 도망치듯 이리저리 차를 피해서 길을 건넌다. 스쿨 존에 관한 뉴스장면이다. 길을 곡선으로 만든단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제는 운전하는 사람의 의식의 문제이지 제도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길에 휴지나 담배꽂초를 마구 버리고 침을 뱉고 어깨를 치고 그냥 지나가고, 물을 틀어 놓고 양치질을 하고, 골목에서 밤 중에 경적을 울리고, 비 오는 날 흉터물을 튀기면서 운전하는 사람들... 이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소한 일들이 나라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를 결정한다.

‘다움’이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모자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다움’, ‘여자다움’, ‘아름다움’, 이같이 사람다움이란 사람으로서 함께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나가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편해서 내 것을 함부로 비운다면 다른 사람은 그에 따른 수고로움과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함께 살아갈 줄을 아는 사람을 사람다움이라 한다. 네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는 말씀을 충분히 깊게 이해하는 인격을 의미한다. 제도와 다른 이의 눈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니

안동권씨 전주, 완주종친회 제 1차 임시 총회 개최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는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종친회 대회의실에서 3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임시총회는 권봉철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장기적인 입원 치료를 받게 되어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종친회 운영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권경택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부터 권봉철회장의 장기 입원으로 회장직무를 대행하여 왔으며 오늘까지 종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종친회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종친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 더욱 화합하는 종친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회장 선출에서는 참석 회원의 뜻을 모아 권기성 자문위원이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되었으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권기성 신임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족한 저를 믿고 추대해주신 종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ند며, 선배님들께서 쌓아 오신 전통을 계승하고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욱 활기찬 종친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젊은 세대와 여성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종친과 소통을 활성화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따뜻한 종친회를 만들어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임시총회는 참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모든 안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으며 새로운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종친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임시총회를 마무리하였다.

권기성 신임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가 더욱 화합하고 번영하기를 모든 종친과 함께 기원한다.

권영춘 전주, 완주종친회 총무이사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이취임식 거행



권정찬 전임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권경택 신임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이취임식이 6월 21일 11시 외대후문 앞 〈그집〉에서 거행되었다.

회원들은 앞서 제362차 정기산행으로 천장산 둘레길을 돌았다. 이후 회원들은 〈그집〉에 집합하여 그동안 산악회 발전과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애쓴 권정찬 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권경택 회장이 취임했다.

권정찬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매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신임 권경택 회장님을 중심으로

로 산악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경택 신임 회장은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족한 저에게 회장의 소임을 맡겨 주셔서 과분하다. 매월 한반씩 산행을 한다는 것으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산악회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잘 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살려서 안동권씨의 후손으로서 이에 걸맞게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경택 서울산악회 회장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이다. 이것이 생명의 질서요 생명의 길이다. 이같이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병들지 않은 사람이다.

함께 산다는 말은 사람끼리 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 자아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은 사람의 논만 피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내가 한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속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금언(金言)이라 한다. 우리 속담에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고 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모두 사실이다. 식물, 화초, 물에도 눈과 귀도 있고 의식도 있다는 말이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주변의 모든 사물과 하나님 안에 모두가 각인(刻印)된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는 비단 사람에게만 아닌 자연과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은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마움을 아는 일 또한 사람다움의 삶이기 때문이다.

7. 진정한 삶

살려고 갖은 몸부림을 치지 누가 죽고자 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을 참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산다고 말했듯이 사람은 참으로 사는 법을 모르고 또한 병들지 않고 사는 법을 모른다. 현대들은 그렇게 분주히 살면서도 참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사는 데는 도무지 생각이 모자란다.

어느 성직자의 묘비에 적히기를, “나이가 들어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살아서 살고자 함은 삶이 아니다”고. 무슨 뜻일까? 제 한 몸 위해 먹고 마시며 살다가 늙어 죽음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다. 뜻이 있는 일에 사명을 다 하고 그것을 위해 죽고자 할 때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있는데, 왜 사는 일만 생각하고 그에 연연하는가? 자신이 생각하여 뜻있는 일에 죽고자 목숨을 걸면 또 다른 삶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죽을 힘을 다 해서 공부한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무엇을 할 때 참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 생활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종교인은 진리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다. 공연히 성직자에 빌 붙어서 형식만 남아있는 생활이라면 공명불하고 있는 쪽이다. 스스로 예수가 되고 석가모니처럼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류에게 깨우침을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그 분들의 참 뜻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 방법은 죽을 힘을 다해 찾으면 찾고 얻게 되고 열리게 되는 법이다. 이것이 진리가 너무도 무지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스스로 묻고 답하기를 죽기까지 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사는 길이니 그대 앞에 열릴 것이다. 이 땅에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임신출세를 위하여 구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의 송고함과 신비로움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스스로 살아 있는 자신 안의 생명이 영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